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25.(수) 18:00
(지면) 2026. 3. 26.(목) 조간

전남·광주 통합, 지역소멸 극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마중물 만들 것

- 윤호중 장관, 광주광역시, 전남 함평·영광군 방문해 산업·경제·생활·복지 등 전 분야 통합 체감도 점검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3월 25일(수), 윤호중 장관이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·광주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<광주 : 사회적경제지원센터>

- 먼저, 윤 장관은 지역 사회 경제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*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우수 사례를 청취하며,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* 광주 권역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1,600여 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립·운영·판로·연대 등 광주 지역 사회적경제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
-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혁신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”며, “전남·광주 통합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더 넓은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<광주 :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>

- 이어, ‘장성군’이 ‘광주’에 설치·운영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‘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*’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*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900여개 농가에서 4,300여개 품목 출하중, 일평균 방문객 850여명, 일평균 매출액 32백만원(‘25년말 기준)

- 윤 장관은 “도시와 농촌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거대한 경제 산업체를 구축한 광역 협력의 훌륭한 모범사례”라며, “이러한 상생모델이 널리 확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<함평 : 빛그린 국가산업단지>

- 다음으로, 전남 함평군과 광주광역시에 걸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광역 협력 국가산단인 ‘빛그린 국가산업단지’*를 찾아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부지 조성 현황을 살피고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* 전남 함평군과 광주 광산구에 걸쳐 조성된 123만평 규모 국가산업단지

-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“행정통합으로 전남·광주 지역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빛그린산단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엔진으로 발돋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영광 : 통합돌봄 업무관계자 간담회>

- 끝으로 윤 장관은 영광군청을 방문하여 오는 3월 27일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을 앞둔 영광군의 통합돌봄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, 업무 담당자와 지역 의사회,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.
- 윤 장관은 “통합돌봄 서비스가 노인,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, 사회연대경제 주체 등 민간부문과 힘을 모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식 (044-205-3104)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염성욱 (044-205-32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우 (044-205-3217)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분권제도과	책임자	과 장	허승원 (044-205-3301)
		담당자	사무관	문정목 (044-205-3312)

